

“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만 사랑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와는 달리 소아시아 지방의 빌라델비아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반면에 라오디게아교회는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됨을 계시하시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셨다. 빌라델비아 지역엔 지진이 자주 일어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반기독교운동이 유대인 회당 즉 마귀운동이 일어남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특히 거룩과 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들의 거짓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박해를 심하게 해 왔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교회를 향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서 열면 달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으로서 천하에 가장 든든하신 힘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셨다. ‘다윗의 열쇠’ 란 그 시대로부터 천년이 지난 후에 오신 ‘메시아가 열쇠’ 를 가지셨다는 것이다. 39세의 젊은 과학자로 살다가 죽은 파스칼은 그의 팡세 ‘생각함’ 에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은 성도에게 무한한 힘이 되었고, ‘그 열쇠를 가진 이가 그 집(그 왕궁)의 출입자를 정하는 천국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 또한 성도에게 무한한 힘이 된다’ 고 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승리한 교회’ 가 된 것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오늘날도 사회주의국가나 이슬람국가 치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와 오해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북한이나 터키 같은 나라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함으로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낙심이나 근심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치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밤낮으로 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오늘도 조금이나마 하다가 죽겠습니다’ 라는 절규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도 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책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서툰 사람이 되어 성경을 잘 모르는 자가 되었다면 하루에도 조금씩이나마 읽고, 알려고 노력하고,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말씀을 지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교회처럼 되어야 한다.”

작은 능력을 갖고 겸손할 줄 알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비록 작은 힘 밖에 없으나 이 힘을 주를 위해 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기 위해 살기보다 주님 위해 사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사랑하는 이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된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모든 거짓과 거짓말의 원천이 된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거짓말하는 이들은 결국 “빌라델비아교회에 몇 사람을 주겠다 하셨다. 그들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가 올 것이라” 한다. 교회가 거룩과 참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고 한다. 이기는 자 즉 마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고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야긴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보아스같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 받은 일꾼 삼아 주신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칭찬받은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우자.

-한국장로신문 [제 1555호] 2017년 7월 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1:2-8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Preparing the Way”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스, 이경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감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차원 높은 복 ”

■ 대상 4:9-10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 내 의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내 힘을 다 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은 한 입에 넣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시험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찌르는 가시와 뿔은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연단과 훈련과정을 거쳐서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복은 천천히 온다

하나님의 복은 커다란 배가 항구에 접안하는 것 같이 저 멀리 아득했던 것들이 우리 영혼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은 회개하거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확실하게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묵도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항구에 쓸쓸같이 들어오는 작은 배는 시끄럽고 오래기만 할 뿐 거기에는 내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들어오는 커다란 배에는 내릴 것도 많고 나눌 것도 많은 법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을 행함으로 증거하며 기도와 오만 침용으로 가다릴 때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가을 수확기 때, 어부는 그물을 들어 올릴 때, 그리고 성도는 복이 들어오는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칫 경거망동함으로 받을 복을 다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 기독교 영성의 진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고난이 올지라도 가까이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가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진수입니다. 아베스는 매우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베스의 가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소망이 사라진 아베스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빈곤과 속 수는 것 자체가 서럽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 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를 천국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진정한 복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인생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재물의 힘이나, 쾌락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는 분리되며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3. 성경의 역사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궁상스럽기 이를 데 없던 아베스의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이 구원함에 이르고 사들들에게도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이 타인을 치료하는 손이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환란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동족의 고통이 그에게 큰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베스는 그 누구보다도 큰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백성들의 치유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아베스와 같이 차원 높은 복을 구해야 합니다.

맺는 말

지금 우리 서울교회에 일고 있는 풍랑 가운데도 배짱없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음은 기적입니다. 서울교회를 덮고 있는 이 풍랑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를 정화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앞으로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또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실패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패한 자를 이용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경이 넓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힘을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서울교회에 승리의 영광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과 결말은 승리하고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아베스의 꿈에 동참하시고, 아베스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오후 5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히 5:7 인 도 자
 찬 송 162(151) 다 함 께
 기 도 황병석 집사
 성 경 시 110: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헌신" 설 교 자
 특별찬양 사 랑 부
 * 찬 송 165(15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암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0: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40(시 9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7(2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부 빌 4:2-7 인 도 자
 2,3부 빌 4:4-7...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1부 하나님의 영광이 지키시리라 이종윤 목사
 2,3부 하나님의 영광이 지키시리라... 조광호 목사
 * 찬 송 Hymn405(45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김선영1 권사
 성 경 삼상 19:18-2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다윗이 도피하여"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새벽기도회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모 임

- 12사단 진중세례식 / 21일(토) 오전 7시 교회출발(인제)
- 10교구 모임 / 21일(토) 오후 1시 스테이지28(02-3426-1928)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양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계현(안과), 오병호(피부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노선균(흉부외과)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조광호 목사 소개 건국대 사학과(B.A.) 장신대 신대원(M.Div.) 독일 마인츠대, 함부르크대 수학 독일 뉘른베르크대학(Bielefeld) (D.theol.) 서울장신대 신약신학 교수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89명	256명	227명	1,372명	13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4/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 8일	헌 금	36,696,000	
"	찬양운영비		2,000,000
	비전2020		323,500
"	출 판 비		380,000
	복리후생비		395,250
	차량유지비		202,320
	소모품비		2,138,450
	수도광열비		69,000
	수선유지비		4,779,090
"	식당운영비		495,080
	합 계	36,696,000	10,782,69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 주일을 맞아 사랑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